

# 진흙서도 피우는 극락



## <8> 보살도의 꽃-홍련화

어떤 집에 밤중에 도둑이 들어왔다. 깊게 잠 들 었다가 뭔가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깬 주인집 아줌 마는, 집을 이리저리 뒤지고 있는 도둑을 보곤 영 겹결에 "도둑이야!"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. 그 바람에 태연히 제집 뒤지듯 '작업'에 열중하고 있던 도둑이 깜짝 놀랐다. "아이구, 깜짝이야! 왜 소릴 지르고 지랄이야, 미친년. 죽고 싶어" 주인 집 아줌마는 그만 겁에 질려 소리지른 일을 후회 하면서, 이불을 뒤집어 썼다. 그리고 숨소리도 못 내고 도둑이 빨리 작업을 끝내고 무사히 돌아가 길 기다릴 뿐이었다. 도둑은 여유롭게 작업을 마 치고 호기를 부리며 유유히 사라졌다.

요즘은 세상이 옛날과 참 많이 달라졌다. 옛날엔 도둑질하다 들리면 잡힐까봐 도망을 갔는데, 지금은 도둑이야, 소리를 질러도 겁을 먹지는커녕, 집 주인이 겁 먹는, 참 뻔스런 세상이 됐다. 옛날엔 배고파서 마지못해 도둑질을 했지만, 지금은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모으려고 큰 도둑질을



## '나'와 '너' 따로 봐 세상은 고해와 같아

## 고통 함께 나눌때 원용한 세계 열려

하고도 아주 호기를 부리는 세상이다. 참 묘한 세 상이다. 이것이 다 시대 탓일까? 그럴 수도 있지 만, 그 보다도 근본적으로는 중생의 허망한 탐욕 때문이 아닐까?

얼마전 어떤 분과 통화하던 중 이런 말을 들었다. 어느 날 집에, 몇 개월 뒤 보이지 않는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드나 들었다.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그 분은, 그 강아지에게 치즈도 주며 담뱃 놀 게 했다. 강아지는 갖은 재롱을 부리며, 때론 놀아 지게 잡도 자다 저녁이면 제 집으로 돌아가곤 했 다. 그런데, 그 강아지가 옆집 진돗개에게 놀러 갔 다가 그만 물려 죽고 말았단다. 그래서 방금 뒷 산 에 물어주고 왔단다. 그 진돗개는 그 전에도 서너 마리나 동족들을 물어 죽이고도 태연하다고 분개 가하는 것이었다. 그것은 자기영역을 지키려는 진 돗개의 본능에 충실한 무의식적 행위였겠지만, 그 것이 어디 그 진돗개에게만 국한된 일이겠는가. 허벅에도 몇 번씩 타아(他我)를 죽이면서도 그것 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가 아닐까? 그러기 에 불교에서 이 땅을 예토라 하지 않는가?

오래전에 나는, 기독교의 어떤 기도원에 머물동 안 들어간 적이 있었다. 그때만 해도 나는 좀 따지

는, 아주 논리적인 사고에 젖어 있던 까다로운 사람 이어서 기도원 같은 비합리적인 곳에 들어 간다 는게 좀 거북살스런 일이었지만, 경험(苦)상아, 또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관할(管轄)이 들어갔는데, 나는 그만 놀라고 말았다. 그리고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 된 것이었는지 크게 깨닫게 되었다. 아, 이것이 바 로 아비규환의 세상인가.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이 세상인가. 저 아비규환 속에서 나는 나를 발견 하곤 정말 가슴이 타지는 아픔 속에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. 앞으로 사형선고를 받고, 한두 달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또는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를 내고 처자식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, 살려달라고 울부짖 고 애원하는 저 가난한 인생! 기도의 효험(功效)이 있 고 없고는 문제가 아니다. 그런 걸 따지며 이 실존 적 현실을 객관화시키는, 내 바위덩이처럼 굳은 미 망한 자이는 무엇인가? 내가 그들을 비웃을 권리가 나에게 있는 건가? 저것이 바로 '나'의 실상임을 나는 엄경대처럼 깨달았다. 그리고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마음이라면, 그 마음 속엔 하느님도, 부처 님도 종교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.

정말 세상은 '아름'의 세상이다. '괴로움'의 세 상이다. 왜? '나'와 '너'를 따로 나누기 때문이다. 내가 바 부르니까 '너'의 굴주림이 따로 있고, 내 가 행복하니까 '너'의 불행이 '강 건너 불'이 되 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고해가 된다. 여차피 실상이 없는 존재인데, 리무진을 타고 무덤에 간다 해도 죽을 앞에 선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. 허망한 '나' 를 불독고, '너'를 남이라고 생각할 때, 이 세상은 예토가 된다. 세상은 '너'와 '나'가 따로 있는 것 이 아니다. 이것을 무이상(無二相)이라 하는가? 그것 이 훌륭한 삶이요, 곧 법성이자 했다. 극락세계 가 정토인 것은 '너'와 '나'가 따로 아닌, 하나의 세계인 때문이라고 나는 믿는다.

절마다 영지(影池) 아니면 연지(蓮池)가 있다. '나'를 비쳐 주는 물 속에 부처님은 웃고 계시다. 예토 속에서 부처님은 정토의 세계를 꽃 피우고 계시다. 그리고 고해가 곧 열반인 것을 일러 주시 고, 그러므로 부처가 곧 자비인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신다. 이 예토 속에서 내가 처연상정(處染常淨)의 보살도를 행할 때, 이 세상은 곧 극락정토가 되 는 것임을 나는 홍련화 속에서 깨닫는다.

전성(사진가)

현대불교 -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



대장경을 읽읍시다  
대장경을 봉안합시다

## 持戒와 지혜가 특히 중요

### 한글대장경의 세계

#### 장아함경

21. 범근경(梵勤經)  
부처님이 죽임에 계실 때 선념법지는 3보를 비 방했으나 그의 제자 범달마는 3보를 청천했다. 이 를 두고 여러 비구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는데 부처님은 3보를 해방한다고 하여 분심을 내서도 안 되고 3보를 청천한다고 하여 환희 하여도 안 된 다고 가르쳤다.

22. 종덕경(種德經)  
종성, 풍송, 단정, 지제, 지혜를 구족한 종덕(種 德)이 부처님 공덕을 찬탄할 때 부처님은 5법을 구 축한 이름 바라문이라 하지만 그 가운데 지제와 지 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.

23. 구라단두경(究 羅檀頭經)  
부처님이 구살라국 시사바 숲에 계실 때 학덕을 겸비한 구라단 두 바라문이 자신의 11법 구족을 칭송하는 제자들의 말을 물리치 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한다. 이에 부처님은 대사 법(大乘法)의 과보 보다는 수승한 귀계(歸戒) 자심 (慈心) 출가의 공덕에 대해 설명했다.

24. 견고경(堅固經)  
부처님이 나란타성의 바라비암 숲에 계실 때 견고 장자가 비구들이 보는 앞에서 신족을 나타낼 것을 부처님께 3번이나 간청했다. 그러나 부처님 은 그 법을 가르치지 않고 고요한 곳에 조용히 있 아 도를 생각하고 덕을 덮고 허물을 드러낼 것을 가르쳤다.

25. 나형비지경(裸形梵志經)  
부처님이 위악국 금반녹림에 계실 때 나형비지

가섭이 부처님께 고행자들을 꾸짖느냐고 묻는다. 이에 부처님은 고행에도 선악의 두 갈래가 있으나 다만 출요(出要)가 아님을 가르친다.

26. 삼명경(三明經)  
부처님이 구살라국 이차 숲에 계실 때 삼명 바라 문 가운데 비가라 바라문의 제자와 다리차 바라문 의 제자가 자기들의 도가 진정하여 출요를 얻고 범 천도에 이른다고 논쟁을 벌이다 부처님께 결론 을 묻는다.

27. 사문과경(沙門果經)  
부처님이 왕사성의 아바원에 계실 때 아사세왕 은 오늘 밤은 보름달이 밝으니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우사 대신에게 묻는다. 우사는 육사외도(六 外道)를 찾아 마을의 개오를 구하여 좋다고 대답한 다. 그러나 왕은 수행자들에게 부처님을 찾아 마음 의 개오를 찾으라고 권한다.

28. 포타바루경(布 婆樓經)  
부처님이 사위국 범 지 숲에 당도했을 때 포타바루 바라문이 상 생상발론(生思想論) 을 비롯해 유상 무상 론, 유변론 무변론 등 철학적인 문제를 아야 기한다. 그러자 부처

님은 이 같은 철학 문제는 정리를 얻는 법이 아니 며 오직 사성제만이 법의에 맞는 범행임을 강조한 다.

29. 로차경(羅遮經)  
부처님이 구살라국 시사바 숲에 계실 때 로차 바 라문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나가다가 얼마안 가 서 악견을 일으켰다. 부처님은 그를 위해 삼사(三 師)와 사사분과(四沙門)를 말씀 하셨다.

30. 세기경(世紀經)  
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이 문체세간의 발생성립 진전변화와 종말구결 및 구성조직에 대하여 불교 의 우주관을 설명한다.



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 캠페 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 하고 있다. 캠페인 및 대장경 봉안 봉사, 역경 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한 문외도 항시 받고 있다. 장경각보고 및 캠페인 관련 문의 02)722-4162, 역경후원회 문의 02)2260-3883, 역경후원 금 온라인 농협 078-02-079975 예금주 강계술 (석주스님).

전통화 전문

# 海印佛敎美術院



해인 불교 미술원은  
장인 정신으로  
불국토를 이룩하겠습니다

■ 전통화 전문 ■ 시왕 조각품 채색 ■ 개금

서울시 중구 목정동 18-27 대익 문화원 빌딩  
代 02)2265-0108

소직 가방과 모자만을 생산해 온 35년 전통의 성림에서  
스님과 불자님을 위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.



규격 330×280×140  
모델명 S-2001 가격 36,000



규격 360×220×140  
모델명 S-2002 가격 35,000



규격 340×270×105  
모델명 S-2003 가격 36,00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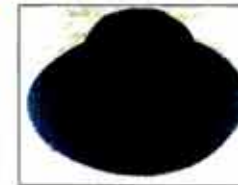
규격 290×220×100  
모델명 S-2004 가격 18,000



규격 300×420×150  
모델명 S-2005 가격 43,000



사이즈 57.5cm  
모델명 S-2006 가격 17,000



사이즈 57.5cm  
모델명 S-2007 가격 17,000



사이즈 조절 가능 있음  
모델명 S-2008 가격 17,000

#### 제품의 장점 및 특징

1. 완전 방수가 됩니다.
2. 수납공간이 편리합니다. (성림만의 독특한 수납공간 보유)
3. 가볍습니다.
4. 튼튼합니다.
5. 저렴한 가격입니다.
6. 항시 A/S가 가능합니다.

※ 기록 모양의 지퍼는 건강과 장수의 상징입니다. 이용시 불핀의 점은 연혁주십시오.

단체 주문도 가능합니다

#### 서울 취급점

김상원 02)722-4435 이화불교사 02)720-1700 광명사 02)732-4792

성림산업 서울시 은평구 불광 2동 259-58 대표: 송중순

TEL : 02) 385-7150 / 02) 353-7048 FAX : 02) 382-4006 H.P : 019-386-6863